

[심층] >> 3면
외대사랑 순찰대

[기획] >> 4면
국제교류프로그램

[심층] >> 7면
죽보문제

[사회] >> 8면
스몰 시스터



끝나지 않는 갑론을박, 우리학교 순찰대

우리학교에는 캠퍼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대사랑순찰대와 HUFS폴리스가 있다. 그런데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순찰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학교의 입장, 타 학교 순찰대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8면에서 계속

글·사진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스마트 도서관 기공식 성황리에 열려



▲지난달 8일 스마트 도서관 기공식 행사(사진출처=홍보실)



▲20억 원을 기부하는 윤윤수 필라 글로벌 회장(사진출처=홍보실)



▲지난달 8일 스마트 도서관 기공식에서 연설하는 김인철 총장(사진출처=홍보실)

지난달 8일 오후 5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스마트 도서관 기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김인철 총장△강덕수 서울캠퍼스 부총장△조기성 글로벌캠퍼스 부총장△김현택 대외부총장△김종석 산학연계부총장△민동석 총동문화장△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윤윤수 필라 글로벌(FILA Global) 회장△안중현(서양·독 일어 16)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재학생 등 총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구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김인철 총장은 행사

에서 “도서관 건립에 보여주시는 △동문들△기업인들△우리학교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에 기공식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진행된 스마트 도서관 기공식 리셉션에서 윤윤수 회장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부했던 7억 원 외에 13억 원을 더해 총 2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우리학교 대학 평가 종합대학 11위, 교수 연구분야 약세

이번 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13위(종합대학 11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머물렀다. △교육여건△학생교육 및 성과△교수 연구△평판도를 기준으로 한 종합 및 영역별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168.9점으로 지난해보다 0.8점 하락했지만 국내 순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지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교육여건에선 강세를 보였고 교수 연구 부분에선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평판도 영역에서 4개 순위, 교육여건에선 6개 순위가 오른 반면 교수 연구 영역에선 4개 순위 하락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학교는 13위에 올랐다. 지난해 59.2점으로 국내 11위, 아시아 69위에 올랐지만 이번 해 49.9점을 받으며 국내 13위, 아시아 84위에 올라 지난해보다 각각 2위, 15위씩 하락했다. 지표별 결과 현황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국제화에서 강세를 보였고 교수 연구는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우리학교 ‘2018 HUFS 인문주간: 세계의 인문정신을 찾아서’ 개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정문 근처에 걸린 인문주간 행사 현수막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우리학교 양 캠퍼스에서 우리학교의 대학 인문 역량 강화(CORE) 사업단의 주최로 ‘2018 HUFS 인문주간: 세계의 인문정신을 찾아서’ 행사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월요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BRICs 문화관에서 ‘문화공연기획과 무대미술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시작으로 이번 달 2일까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엔 우리학교 △양캠퍼스 부총장△교수△학생뿐만 아니라 △김은지(대한무역공사(KOTRA) 전문

위원)△김병호(매일경제 기자)△오형규(한국경제 논설위원)△유하진(서울시립대 교수)△정규준 박사(SK텔레콤)△에스더 리(월드아트 오페라 단장)△문정현(영화감독) 등과 외부 전문가가 또한 참석했다. 행사는 개막식을 비롯해 △학생 발표△간담회△명사 강연△CORE사업 성과발표회△특강△토크쇼△영화 상영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에코백△유에스비△텀블러 등의 기념품이 증정됐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학과 통합 논의, 종합검토 중...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 52대 총학생회 ‘푸름’ (이하 서울캠 총학)은 총장을 비롯한 양 캠퍼스 교무처장이 학교(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부)장에게 발송한 메일을 입수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로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이원화됐던 본·분교를 통합해 하나의 학교가 됐지만 양 캠퍼스에 남아있는 유사학과 통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캠 총학이 입수해 게시한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구성원들 대다수가 양 캠퍼스에 중복 학과가 우리학교의 도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 공감하고 있고, 통합 문제가 학교마다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단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 관련학과 학과(부)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나눴으로써 논의의 장을 열어 가려함. 이에 학교(부)장님들과 일정을 조율하고자하니 너그러운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름》

이에 서울캠 총학은 “양 캠퍼스의 중복성이 있는 학과(부)의 통합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나 소식조차 공유 받지 못했다”며 “학사개편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들이 제의된 채로 학제개편이 논의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무처에 이와관

중복학과 통합 추진에 관한 입장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금요일 페이스북 페이지로 양 캠퍼스의 중복성이 있는 학과(부) 통합추진 관련 자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공문의 내용으로는 총학생회는 총장과 양 캠퍼스 교무처장들의 이름아래 중복성이 있는 학과(부) 통합 추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메일을 입수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입장을 알려달라는 공문이었습니.

이에 저희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진회반면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 이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선 주일로 인해 공문을 포함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이 불가능한 관계로 지난 10월 15일 월요일 양 캠퍼스 차장단 회차에서 어떠한 회제가 이루어졌고, 최근 2달 간 양 캠퍼스 중복학과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이 올라간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학교 본부는 “지난 10월 15일 월요일 차장단 회차에서는 중복학과 통합 추진에 관한 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있을 학과장회의에서 다루어질 인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히며 “학과장회의, 전체 교수회의는 매 학기 학교의 전략적인 사업, 수급, 평가, 예산, 인건에 대한 회의고 중복학과 통합 추진 인건도 그 수급, 개종, 교무적, 즉 시간 중 하나이다. 실제 교수들 사이에서 한번의 목소리가 높고 교육부의 승인까지 필요한 관계로 심리적 진행이지 못하는 인건이다.”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복학과 통합 추진에 대한 인건은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인건의 시행 방향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사개편을 포함한 여러다량의 변화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학생, 교수, 종문 등 어느 한 주체도 이러한 여파에 무관할 수 없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가 바로 학생들이라는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의제에 있어서 학교, 본부, 각처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지 않음에 학교 본부에 깊은 실망감과 분노의 입장을 밝힙니다.

저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2일 월요일 교무처장에게 보내는 공문(학과장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에 대한 입찰을 시작으로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총장회의 전달, 오후 대학평의회 10월 31일 양 캠퍼스 공통 주관 학사제도개선회의)라는 입장을 통해 중복학과 통합 추진에 대한 학교의 입장과 진행 경로를 알아보고 해당 사항이 직접 반영된 앞으로 진행 방안에 대해서 학교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하에 글로벌캠퍼스 내 학생대표(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며, 서울캠퍼스 학생대표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힙니다. 글로벌캠퍼스, 일대성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캠퍼스 안중현 총학생회장은 통학에서 중복학과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 본부가 학생 주체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불만을 표출하며 양 캠퍼스 총학생회 적극적인 협력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수 있을 기피하며 올바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협력을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글로벌캠퍼스 학우 여러분께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며, 여러 생각이 들어 이점에 대해서 최속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진회반면을 우선시하고 학교가 취할 여러 지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행 기간 중 이러한 좋지 못한 내용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솔개 초 여러분들에게 호소했던 ‘학생이 이 학교의 주인이다’라는 우리학교의 고귀한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깨우며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의제 설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39대 청춘예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난달 21일 글캠 비대위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복학과 통합에 관한 입장문

련한 설명과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학교 본부에 “양 캠퍼스가 상상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청춘예찬’ (이하 글캠 비대위) 역시 지난달 22일 ‘중복학과 통합 추진에 관한 입장문’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글캠 비대위는 교무처장에게 학과 통합 추진에 관한 교무처의 입장과 이에 관한 회의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총장과의 면담 △대학평의회회 △양 캠퍼스 공동 주관 학사제도 개선협의 등을 통해 학과 통합추진에 관한 학교의 입장과 진행상황을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글캠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지 않음에 학교 본부에 깊은 실망감과 분노의 입장을 밝힌다”며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의제 설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중복학과”란 용어에 “학사개편 논의는 중복학과 통합이 아닌, 학과 통합 논의이며 법률적으로 중복학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렸다. 교무처는 “학과 통합 논의는 현재 30개 학과 중 28개 학과 학과장과 면담 진행 중”이라며, “이는 대학 입학 대상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우리학교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우리학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 철회 기자회견 진행해



▲이번 달 1일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열린 총학생회 기자회견

이번 달 1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푸름’ (이하 서울캠 총학)은 오후 1시부터 30분간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박철 전(前) 총장 명예교수 임명 철회 및 학생대표자 징계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병수(영어·영문 16)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서울캠퍼스 총학과 학과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과대학 대표자 발언 △성명문 낭독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우리 학교 박철 전 총장(이하 박 전 총장)의 헌법소원청구를 기각 및 각하하면서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5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캠 총학은

지난달 22일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 철회 △학과 학교법인의 책임 △학생대표자 징계 사과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서울캠 총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낭독하며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 철회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캠 총학은 성명문을 통해 “총 11억 원에 달하는 교비가 학생들의 교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인 우리학교 교직원 노조를 탄압하고 2007년故 이 교수의 성희롱 발언을 변호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며 “노조탄압의 역사와 교수-학생 간 뿌리 깊은 불신을 자초한 박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알렸다. 덧붙여 서울캠 총학은 “△김인철 총

장△학교 본부△학교법인 동원육영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 철회 안건 교원인사위원회 상정 및 임용 철회△대학 본부와 학교 법인의 박 전 총장의 횡령과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사과△학생대표자 징계 사과 요구 등의 내용 전했다.

한편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청춘예찬’ (이하 글캠 비대위) 역시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박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 철회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글

캠 비대위는 “박 전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기각 처리됨으로 혐의가 인정됐다”며 “조속히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직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직 파면을 위해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2018년도 제 2학기 정독·다독상 수상자

2018학년도 2학기 정독상 수상자(글로벌)

최우수상: 최성민(인문·철학 17)
우수상: 현소영(국제지역·프랑스 14)
△이다영(국제지역·한국 14)
장려상: 권문경(경상·GBT 17)△배인석(인문·지론 15)△손예슬(통번역·영통 18)△서형우(국제지역·러시아 15)

2018학년도 2학기 다독상 수상자(글로벌)

우수상: 배대철(통번역·태국어 14)
장려상: 강지혜(통번역·스페인어 13)△강민성(경상·경영정보 13)△남원정(자연과학·생공 17)△김진관(통번역·영통 18)△유창진(인문·지론 16)△이재천(통번역·중국어 13)

2018 2학기 정독상 수상자(서울)

최우수상: 박재민(상경·경제 14)

우수상: 박지혁(서양어·독일어 14)
△윤가영(사회·미디어 15)
장려상: 김우혁(영어·영통 10)△김재현(아시아·터키어 10)△이유진(사법·프교 18)△장희준(사회·미디어 12)

2018학년도 제 2학기 다독상 수상자(서울)

우수상: 김명근(아시아·태국어 16)
장려상: 이주호(중국어·중국어지역학 12)△강한솔(서양어·스페인어 13)△고상원(영어·영어 16)손지영(영어·영문 17)△정예나(상경·경제 17)△이다희(사법·독교 14)△장혜진(서양어·노어 15)

토익/토플 모의테스트 성적 우수자(서울)

우수상: 김정주(서양어·스페인어 16)
장려상: 김정원(사법·영교 16)△채지우(아언문·아랍어 18)△김상진(중국어·중국어지역학 12)

www.korean.ac.kr

2018학년도 겨울학기(제43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국내 유일의 언어권별(영, 중, 일) 맞춤 이론 수업 진행
실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실습 수업 실시
40년 전통의 한국어교육의 산실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의 노하우 전수
한국어교육 권위자 허용 원장(Marquis Who's Who 등재) 직접 강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제공
우수 수료자 대상 본 원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2018학년도 겨울학기(제43기) 신입생 모집안내

※ 교육일정
2019년 1월 2일(수) ~ 1월 31일(목) 월~금 / 9:20 ~ 17:30 (총 130시간 과정)

※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원서접수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 12월 17일(월) 오후 4시
지원자격 :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TOPIK 6급 소지자)

접수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 형 료 : 20,000원
등 록 금 : 1,415,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처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구수평가원 101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02-2173-2260 / 이메일, cklace@hufs.ac.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안내메시지도 이동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끝나지 않는 갑론을박, 우리학교 순찰대

우리학교에는 캠퍼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 순찰대가 존재한다. 서울캠퍼스에는 외대사랑순찰대, 글로벌캠퍼스에는 흡스폴리스가 있다. 이들은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치안 불안 해소△건전한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 및 제반시설 보호△교내 주요 행사 치안 유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학교 커

뮤니티사이트에서는 순찰대에 대한 불안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순찰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학교의 입장과 타 학교 순찰대의 운영 방식을 알아보자.

◆우리학교 순찰대가 궁금하다.

2015년 9월 2일 서울캠퍼스의 외대사랑순찰대가, 같은 해 9월 7일 글로벌캠퍼스의 흡스폴리스가 활동을 시작했다. 두 순찰대는 공통적으로 교내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사이버관 설립으로 인해 학교의 담벼락이 철거되며 외부인의 교내 출입이 보다 수월해졌다. 이로 인한 치안 문제, 시설 보호 문제가 대두되며 외대사랑순찰대가 창설됐다. 외대사랑순찰대는 창설된 후 2016년도 2학기까지는 야간에 4시간씩 순찰을 했다. 이후 2017년도 한 해간 주간지킴이가 주간 순찰을 했고 외대사랑순찰대가 야간순찰을 했다. 이번 해부터는 주간순찰과 야간순찰이 통합됐다. 외대사랑순찰대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그리고 3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동대문 현직 경찰관과 이문동 치안센터장이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해 2학기를 기준으로 외대사랑순찰대는 정규학기 기간인 16주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주를 제외한 14주 동안 하루 10시간씩 순찰을 한다. 이들은 주로 캠퍼스 내부를 순찰하며 현직 경찰관들과 함께 공식적인 도보순찰도 진행한다. 또한 학생 순찰대는 근무 시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연락한다.

2015년 글로벌캠퍼스에 괴한이 출현한 적이 있다. 그는 총학생회실에 잠입해 사물함을 뒤지고 학생회관과 도서관의 택배 박스 및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비상대책위원회와 2015년 총학생회 메아리는 흡스폴리스 정책을 구상했다. 흡스폴리스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 면접으로 선발된다. 학생인재개발처장과 용인동부경찰서 담당 교육관이 방문해 흡스폴리스에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순찰 구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흡스폴리스는 약 2km 정도 되는 캠퍼스를 네 군데의 순찰 구역으로 나눠 3인조가 한 구역씩 맡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외대사랑순찰대와 흡스폴리스는 공통적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에 인증한 후 교내 행정 부서와 경찰서에 보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

◆순찰대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들

우리학교 커뮤니티사이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구분 없이 순찰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게시글에서는 순찰대가 있어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순찰대 학생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잡담을 하며 순찰한다”, “순찰하는 것인지 산책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의 거센 비판이 따랐다.

에타에 우리학교 순찰대 관련 설문조사를 4일간 진행한 결과 113명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캠퍼스 별로 서울캠퍼스 학생 47.8%(54명)와 글로벌캠퍼스 학생 52.2%(59명)가 참여했다. 우리학교에 순찰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96.5%(109명)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찰대의 존재를 알고 있고 3.5%(4명)만이 이를 알지 못했다. 또한 순찰대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1.7%(81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28.3%(32명)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순찰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 없다’ 49.6%(56명), ‘잘 모르겠다’ 32.7%(36명), ‘필요하다’ 17.7%(21명) 순으로 나

타났다.

순찰대가 필요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학교 내에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순찰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순찰대를 당장 없애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순찰대를 유지하는 예산으로 외부 경비 업체를 섭외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했다. 추가로 “봉사와 교내 장학의 취지에 충실하고 싶은 것이라면 학생 순찰대를 구성하기보다는 학생식당 조리 및 청소, 설거지 도우미를 모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순찰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술 취한 학우가 있었는데 흡스폴리스 학생들이 뛰어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라며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이어 “순찰이라는 업무는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존재 자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있었다.

◆ 각 캠퍼스 총학생회 입장

흡스폴리스를 담당하는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임태성(자연과학·수학 13) 비대위장은 “경찰의 순찰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용인동부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경찰의 주기적 교내 순찰은 불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경비 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시행이 어렵다”며 “학교 측은 학생 순찰대를 만든 것이 학생을 위함이라 판단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한 얼마 전 학교 측과 안전협의회를 진행한 서울캠퍼스 전병수(영어·영문 16) 부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안전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안전협의회에서 시설팀 교직원들이 안전예산 구축을 위해 외대사랑순찰대 예산조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본부의 문제에도 포함되기에 기존 장학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학생 순찰대에 관한 궁금증을 다 풀어주겠다!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과의 Q&A

1. Q: 학생 순찰대를 운영하면 학교 평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동대문구 경찰서에서 동대문에 있는 3개의 학교, △우리학교△경희대 학교△시립대학교에 캠퍼스 폴리스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를 실행하는 것은 학교 측의 선택사항입니다.

2. Q: 학생 순찰대는 왜 비행청소년을 제지하지 않나요?

A: 이 부분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대사랑순찰대는 성인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쌍방행위자 아닌 미성년자 폭행 문제가 됩니다. 이는 경찰도 마

찬가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3. Q: 최근 교내에서 외부인의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순찰대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실 학칙에 ‘외부인의 포교활동을 엄격히 금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학교가 외부인의 포교활동이 불법 포교인지 합법 포교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치는 순찰대원에게 교내에서 활동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우리학교 구성원’만이 가능하다고 교육합니다. 만약 외부인이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중하게 ‘외부인의 활동은 금지돼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지합니다. 애완견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교내 학칙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기보다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견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으면 견주를 경찰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4. Q: 학생 순찰대 대신 외부 경비 업체를 고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A: 이번 해 기준 순찰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봉사장학금의 예산 규모는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의견처럼 이 예산으로 외부 경비 업체 사람을 고용하면 전문 경비원 4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명을 고용한다고 해서 그 경비원을 학생 순찰대처럼 교내를 10시간 동안 경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문 경비 업체가 주도적으로 순찰하고 순찰대 학생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 Q: 학생 순찰대에 관해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학생 순찰대가 치안에 있어 주도자 역할을 한다기보다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 순찰대는 아무래도 학생이란 신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제한적입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내 안전 강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분들이 참신한 의견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글로벌캠퍼스는 서울캠퍼스와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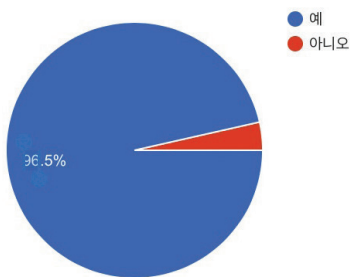
◆타 학교 순찰대는 어떻게 운영될까?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또한 학교 순찰대 ‘이글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이글가드 권남규(생화학 13), 장은진(영어영문 16)공동단장은 “이글가드는 2011년 11월 총학생회 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했다”며 “당시 학내 안전과 학생 보호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커져 학우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설립됐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글가드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선발되며 16주 동안 근무한다. 하지

만 우리학교 순찰대와는 다르게 각 요일에 팀이 배정돼 최소 주 1회 이상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한다. 이글가드는 근로장학금 형태로 활동 수당을 수령하기 때문에 봉사시간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이글가드 인식에 대해 질문하자 권남규 단장은 “이글가드의 존재를 아는 학생들은 안심하고 귀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우 자주 동행요청을 한다”며 “교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활동대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반대여론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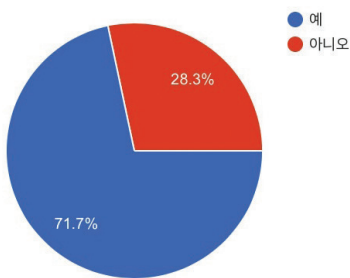
1. 우리학교에 순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응답 1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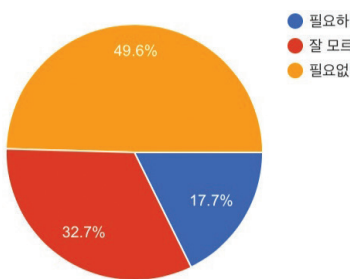
2. 순찰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응답 113개



3. 순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113개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을 하락...그 이유는?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 및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을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교류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학교 학생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율은 점점 감

소하고 있다.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종류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우리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크게 △학위과정△정규학기과정△방학·휴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위과정에는 복수학위제도와 학·석사연계 과정이 있다. 정규학기과정에는 △교환학생제도△7+1파견학생제도△자비유학제도가 있으며, 방학·휴학 프로그램에는 해외연수·계절학기제도와 국제여름학기(ISS)가 있다. 더불어 우리학교는 해외 진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략 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아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환학생제도란 타 대학과 상호협정을 맺은 후, 자매대학 학생과 우리학교 학생을 일정 기간 교환해 수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프로그램 기간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며 등록금은 우리학교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한 학기 과정과 두 학기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7+1파견학생제도란 8학기의 재학 기간 중 원하는 학생에 한해 한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연간 700여 명의 7+1 파견학생을 선발해 해외 우수 대학에 파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환학생제도와 달리 외국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프로그램은 △학교선발△학과선발△우수성적 총 3가지의 전형으로 구성된다. 학교선발 파견학생은 학기당 약 100여 명이 배정되며 학교선발 파견학생은 학과 크기에 따라 학생 수가 배정된다. 학과별 선발 인원은 선발 시기에 올라오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 1학년 2개 학기 평점 평균 3.7 이상을 유지하고 파견 학기 직전까지 전체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을 유지하면 우수성적 파견학생으로 자동 선발된다.

해외연수·계절학기제도란 방학·휴학 중 외국 4년제 대학에서 수학 후 우리학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해외연수의 경우 외국 4년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을 인정받으며 해외계절학기의 경우 외국 4년제 대학 학부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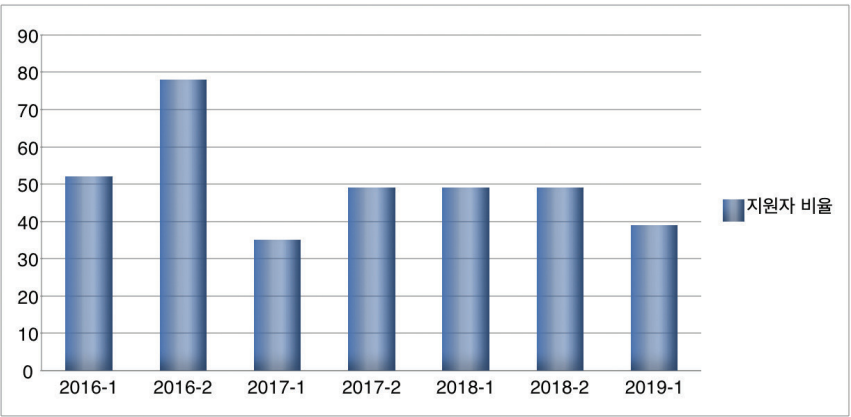
국제여름학기(ISS)는 해외 거주 외국인 학생 및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과 연계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질 높은 영어 강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제도인 아너스 프로그램은 전략 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며, 취업과 직결돼 2016년도 개설 이후 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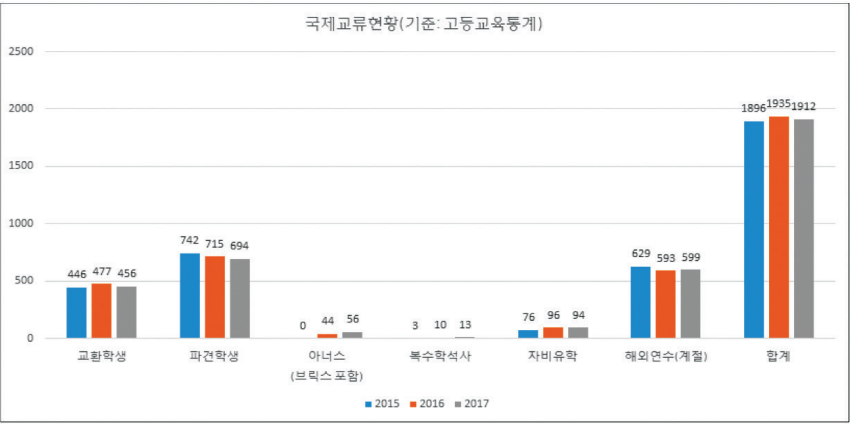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우리학교 학생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교환학생제도 및 7+1파견학생제도의 지원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 교환학생제도의 지원자 수는 2016년 대비 2017년 477명에서 456명으로 21명이 감소했다. 7+1파견학생제도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715명에서 694명으로 31명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연수제도의 경우도 지원

자 수는 2015년 대비 2016년 629명에서 593명으로 36명 감소했으며 2017년에 소폭 상승했다. (아래 표 참고)

국제교류팀은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교류팀은 연간 2회 실시되던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연 4회로 증가해 실시했으며 외국인 상담부스 운영 및 ‘온오프믹스(SNS+오프믹스)’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국제교류팀에 의하면 매년 3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프로그램 설명회를 신청하지만 실제 설명회 참석 인원은 1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설명회와 함께 운영되는 외국인 상담 부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홍보는 증가하지만 지원율은 줄어들고 있다.



▲영어권 교류 프로그램 (복수학위, 학석사연계과정, 교환 및 7+1파견)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 비율(%)



▲우리학교 국제교류 현황

◆학생들은 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 걸까?

위와 같은 국제교류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프로그램 지원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교류팀은 교환학생제도 및 7+1파견학생제도의 지원율이 낮아진 이유로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지적했다. 취업이 어려워진

만큼 학생들은 교환학생 및 7+1파견학생 제도보다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언어 습득 및 현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만큼 학생들에게 현지 경험을 하는 동시에 일을 배울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교환학생 지원자 수는 477명에서 456명으로 감소하고 7+1파견학생 지원자 수 또한 715명에서 694명으로 감소한 반면, 인턴십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인 아너스 프로그램의 지원자 수는 44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장에 요인으로는 ‘어학 점수’가 있다. 영어권 교류 프로그램(△복수학위제도△학·석사연계과정△교환학생제도△7+1파견학생제도)은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점수’를 충족시켜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개 점수 기준이 높아 학생들은

해당 점수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교환학생을 준비 중인 김문정(경상·GBT 17) 씨는 “어학 점수 기준이 높아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이 망설여진다”고 자신의 고충을 전했다. 실제로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영어권 교류 프로그램의 2018-2학기 지원자 수는 129명으로 모집인원의 49%를 충족시켰지만 2019-1학기 지원자는 98명으로 모집인원의 39%를 충족시키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강하림 국제교류팀 대리는 “어학 점수가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못 미치면 입학 허가가 나지 않아 국제교류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며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현지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해외 대학에서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요구되는 어학 점수에 못 미칠 경우 해외 대학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의 학습 능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어학 점수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장에 요인으로는 ‘높은 비용’이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항공권△기숙사△식비△기타 생활비)을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 아닌 만큼 등록금 납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영어권 국가 혹은 유럽 국가는 항공권 또한 비싼 편에 속하고, 물가 또한 한국보다 비싼 편에 속한다. 이는 학생들이 해당 국가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해도 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않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김주희(통번역·태국어 17) 씨는 “학비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싼 항공권과 생활비 때문에 지원이 망설여진다”며 “항공권을 비롯한 기타 부대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하림 국제교류팀 대리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영어권 국가의 자매 학교에 지속적으로 학비 할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제교류팀의 노력을 언급했다.

우리학교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인 만큼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거리다. 국제교류팀 또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입장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해 학생들의 프로그램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학생들의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김초영 기자 96_jvan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회화과정, 방학특별과정, FLEX 어학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8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6. - 12.21.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1.16. - 01.31.
야간과정	20주 야간과정	2월, 8월	08.06. - 12.21.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10.15. - 12.21.
주말과정	10주 주말과정	2월, 8월	08.25. - 11.03.
	FLEX 대비과정	3월, 9월	11월 중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9월	09.01. - 12.15.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ml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원어인(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주중 및 야간과정	02-2173-2515	flttc@hufs.ac.kr
주말과정	02-2173-2525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edulife@hufs.ac.kr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 3518	

우리의 학습권은 어디로...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동대문구가 주관한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동대문구가 주민 화합과 추억을 위한 취지로 준비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었던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이 소식은 달갑지 않았다. 우리학교는 공간이 협소해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 및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이 사건은 지속해서 제기되던 학습권 침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외부인의 우리학교 출입은 자유롭다. 또한 협소한 공간으로 소음 공해가 계속됐고 최근 임시 열람실 운영 미비 문제 또한 불거졌다. 끊임없이 대두되는 학습권 논란과 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알아봤다.

◆ 동대문구 가을 음악회, 논란의 전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가을 음악회 취지가 “주민들과 가을밤의 서정적인 정취를 소박하게나마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번 행사 진행 시점이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 이틀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김서윤(상경·경제 17) 씨는 “잔디광장이 학습 공간으로 사용 중인 건물들과 가까워 행사 소음이 여과 없이 들린다”며 “시험 날짜가 다가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한 “소음도 소음이지만 사전 공지 및 양해도 없이 행사를 진행한 점은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의문도 덧붙였다. 이어 “학교의 주인은 학생임에도 학생의 의견이 중시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청 측은 “이와 같은 논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좋은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으나 의도치 않게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소음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장소를 대여했던 만큼 리허설도 최소화하고 잔잔한 음악 위주로 공연했으나 본의 아닌 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주민 화합과 소통 차원에서 장소 제공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소음 최소화를 위해 조립식 무대를 사용하고 마이크 테스트 등과 같은 리허설을 금지했으며 행사 시간 역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동대문구 가을음악회 포스터

◆ 과연 임시 열람실은 문제가 없을까?

현재 우리학교는 스마트도서관 증개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존 열람실을 대신해 임시 열람실을 개방했다. 현재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임시 열람실 좌석 수는 총 1060석으로 기존 도서관 열람실 좌석 수인 2300석의 약 46% 수준이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임시 열람실 좌석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송수민(서양어·프랑스어 18) 씨는 “기존 강의실을 열람실로 사용하다 보니 좌석 간격도 좁고 이용 연장을 하지 않는 학생

도 많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 수가 적다”며 “학교 측에서 강의실을 더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학습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학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임시 열람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 내 우리학교 커뮤니티사이트 대나무숲에는 본인을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이라고 소개하며 열람실 개방 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취업 준비를 앞두고 집에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열람실마저 24시간 개방을 하지 않으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다빈(서양어·프랑스어 18) 씨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할 때가 많은데 학교 열람실은 오전 0시까지 운영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열람실 이용 시간 연장 요구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임시 열람실 와이파이 연결 문제도 제기됐다.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해 학습해야 하는 경우엔 와이파이 연결 상태가 중요한데 임시 열람실의 와이파이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이수연(서양어·독일어 18) 씨는 “노트북을 사용해 학습하려고 하면 5분마다 한 번씩 와이파이 연결이 끊긴다”며 “대부분 학생이 노트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만큼 인터넷 연결 상태가 보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IT 인프라팀 측은 “국제학사 1층에 와이파이 연결 미흡 민원을 접수했고 점검을 통해 두 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과학관 와이파이 공유기 추가 설치하는 불가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미 모든 강의실에 공유기가 한 대씩 설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공유기 수를 증가시킬 경우 주파수 혼란으로 인해 인터넷 연결이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다”며 “사회과학관 인터넷 연결 끊김 현상은 사용량이 과다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공유기 튜닝으로 연결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총괄지원팀 측은 “사회과학관 임시 열람실 사용 후 원활한 다음 강의 진행을 위해 청소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임시 열람실을 상시 개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이 고등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학생들의 마땅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측 실질적 대처가 기대된다.

안호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 모집학과
[석사과정]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아세안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CIS학과, 유럽연합학과, 미국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 국제학과, 유엔평화학과
[박사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 ◆ 특징
-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 신입생 입학장학금(전원 지급, 등록금 20~30%내외)
 - 학과별 추천장학금(학기별 선발, 등록금전액)
 - 본교출신 조교 장학금 제도(학기별 선발)
 - 성적 장학금(재학생 대다수 수혜)
 - 외부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다수)
 -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 석사과정 비논문트랙 운영(일부학과 제외)

◆ 원서접수

구 분	1차모집	2차모집
원서접수	10.1(월)~10.11(목)	11.12(월)~11.22(목)
면접일	10.27(토)	12.8(토)

◆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Website : <http://gsias.hufs.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돌고 도는 시험문제, 과연 공평한 것일까?

본래 족보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을 뜻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사이에서 족보는 최근 몇 해의 기출문제와 이의 해답으로 통용된다. 족보를 통해 시험의 문제 유형과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은 이를 암암리에 공유한다. 한편 지난 중간고사 기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시행된 한 경제학과 시험에서

족보의 존재여부가 밝혀져 시험이 무효처리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족보는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학생사회에서 이에 관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최근 발생한 족보사건 사례와 학생과 교수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자

◆경제학과 족보 사건

지난 중간고사기간 경제학과 수업 중 하나인 경제발전론 과목에서 몇몇 학생들이 족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경제발전론 수업은 양 캠퍼스의 경제학 이중전공 및 부전공자를 위한 수업으로 개설됐다. 해당 수업의 담당 교수는 글로벌캠퍼스 전용 강의를 진행했지만 이번학기 처음으로 서울캠퍼스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글로벌캠퍼스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족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편 해당과목 시험이 끝난 지난달 23일 한 글로벌캠퍼스 학생이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해당시험을 족보로 대비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다른 수강생들이 시험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 됐으며 발표 출석으로 중간고사를 대신해 평가한다고 전했다.

◆족보 논란의 다른 사례

족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우리학교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 시험 이틀 전 과회장과 조교를 포함한 6명의 수강생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족보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아 문제가 됐다. 이들은 메신저로 “조교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며 약속한 장소로 오면 족보를 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들 모두 해당시험에서 35점 만점에 30점이 넘는 고득점을 받았다. 족보논란에 대해 산업경영공학과 회장은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과목 교수는 “족보는 기출문제”라며 “족보를 얻는 것은 사회생활”이라는 발언을 해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이어 “조교는 시험문제를 미리 알 수 없으며 이 족보는 다른 학교 족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피해 학생들, 담당교수, 그리고 이 사건과 연루된 6명의 학생들을 조사했다.

◆족보의 문제

많은 학생들이 족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족보는 대부분 지인들끼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전해진다. 따라서 족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은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 다른 학생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성적에도 영향을 받는다. 문화영(인문·지식콘텐츠 15) 씨는 “족보가 학생들의 성적에 불공평하게 작

용한다”며 “이로 인해 정직하게 출석하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성적이거나 친한 선배가 없는 학생들은 족보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족보의 발생원인은 매해 비슷하게 출제되는 시험 유형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가은(경상대·GBT 17) 씨는 족보를 활용한 공부는 “그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



▲족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며 이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족보와 비슷하게 나오는 시험문제로 인해 “시험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문제는 “족보 자체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그 행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교수님의 문제인 것 같다”며 “차라리 교수 측에서 기출 문제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수 인터뷰

족보문제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우리 학교 A교수는 “족보 문제는 동일한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시험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학생들의 점수가 상위권에 밀집되어 성적 산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교수가 매해 동일한 과목을 맡을 때마다 문제 유형을 바꾸는 등 족보 문제를 막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B교수는 “각 과목마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험문제가 족보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무리 고정된 내용이라도 유형을 바꿔 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족보의 존재가 잘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족보가 더 이상 공유될 필요가 없도록 그 원인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교수는 “갈수록 더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교가 취업하기 전에 거쳐야만 하는 중간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게 돼 안타깝다”며 “지성과 낭만,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학생들이 서로 노력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2019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9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8.9.27.(목) ~ 10.8.(월)	2018.11.12.(월) ~ 11.23.(금)
고사장 발표	10.10.(수) 15:00	11.28.(수) 15:00
면접전형	10.13.(토) 10:00 예정	12.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4.(수) 14:00	12.12.(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10.29.(월) ~ 11.2.(금)	12.17.(월) ~ 12.2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점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5) 학력조회동의서 부(원본)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교수실관 10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연방교육지원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김완태
우리학교 독일어과 초빙교수
법학박사(Dr.jur.&LEGUM
MAGISTER)

1. 들어가며
학생은 미래에 성공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삶의 필수적 단계로 학생은 완전한 자립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부모△사회△국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성인이 된 대학생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독일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학업 때문에 완전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교육기간 동안 생활을 위한 교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개요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이하 바펙)’은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목적으로 1971년에 제정된 법이다. 모든 청년들이 출신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부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바펙은 △기본 원칙△지원 교육 분야△개별 전제조건△지원 내용과 운영△소득과 자산 계산법△교육지원을 위한 선 지급금△이행기 과정△조직△절차를 규정하며 전체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인은 이를 국가가 교육을 위해 가정형편과 필요를 고려해 매월 지급하는 생활 지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펙은 1957년부터 능력에 따라 선발해 지원하는 우수 대학생 지원정책이다. 이후 1971년 영재 지원과 관계없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정했다. 이 시기 바펙은 학생을 한 해 동안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장기 지원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1983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은 무상 지원, 대학생은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했다. 1990년 독일 정부는 직업학교 학생에게 지원했고 대학교 지원의 절반은 무상, 절반은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바펙을 개설했다. 2008년 독일정부는 이주민 통합을 위해 독일에 영주할 것이라 판단되는 외국인에게도 바펙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화 경향에 따라 유럽연합이나 스위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바펙 지원 대상 석사과정 입학생의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상향 조정했다.

바펙을 위한 재정은 2015년 바펙 25차 개정 전까지 연방이 65%, 주가 35% 부담했으나 2015년부터는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정부의 바펙 재정은 29억 유로다.

3. 구체적 운영현황
바펙의 지원 대상은 △독일인△유럽연합국민△난민△영주권자△독일에 거주할 것이라 판단되는 외국인이다. 이때 바펙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생이 바펙을 지원받으려면 학사과정은 30세, 석사과정은 35세 전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바펙 지원금은 수여자의 참여 교육 종류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바펙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형제/자매의 수△부모와 동거 여부△건강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할 경우(25세 이상)△바펙을 받는 자의 재산△기혼자이거나 동거할 경우 상대방의 수입△자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바펙 지원금은 교육과정이 정한 전체 정규 교육 기간 동안 지원되며 법이 정한 피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첫 번째 졸업시험 탈락△장애△임신△육아 등으로 학업이 지연됐을 때도 지급된다. 바펙 지원 최대 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졸업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졸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바펙은 원칙적으로 목적이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한 교육의 실행을 토대로 지원한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를 입학 4학기 후 전과하거나 △대학을 정규학기 내 졸업하지 못할 경우 △직업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엔 바펙 지원에 제한이 많다. 그러므로 바펙을 받는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성과를 바펙을 관리하는 기관에 지속해서 증명해야 한다.

바펙은 신청제로 운영되며 대학생은 자신이 등록한 대학의 학생후생기구(Studentenwerk)에 △야간△김나지움△콜렉(kolleg)△상급 전문학교△아카데미 교육생의 경우 지역 직업교육지원 관청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 중등학교 학생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직업교육지원 관청에 신청한다. 국제화에 따라 △김나지움△종합학교 학생들의 외국 연수 △전문학교나 전문 상급학교의 직업교육생△대학생의 외국 실습도 신청에 의해 바펙을 지원한다. 이때 외국 체류 예정기간 최소 6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82,000명이 바펙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생은 225,000명, 대학생은 557,000명이다. 전체 독일 대학생 280만 명 가운데 약 20%가량이 바펙 지원금을 받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의 바펙 지원금은 최대 월 735 유로이며 수혜자 절반가량이 최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월평균 바펙 지원금은 학생은 456유로, 대학생은 499유로다. 바펙을 받는 자에게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3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바펙 지원금 가운데 대출금은 학업 종료 5년 후부터 매월 최소 105유로를 최대 20년 동안 상환한다. 종료 5년 이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상환 시작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직업생활을 시작해 상환할 능력이 될 경우 국가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생은 바펙 최대 지원 기간 내 졸업하거나 최대 기간 6개월 또는 12개월 경과 후 성공적으로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국가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의 일부를 각각 △25%△20%△15% 면제받을 수 있다.

4. 마치며
독일은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모든 독일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본다. 이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참여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교육기간 동안 생활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독일 내의 교육 참여자 모두는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을 하고 있다. 바펙을 토대로 독일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지난 2005년 36.1%에서 2016년 51.6%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바펙을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지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 사회적 지출(복지지출)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봐 바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바펙의 목적은 직업을 겸하지 않고도 학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918유로인 반면 바펙 최대 지원금은 월 735유로로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대학생의 61%가 직업생활을 겸하고 있다. 이에 바펙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방위적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소위 사회 하위계층(△저소득층△이주민 가정△부모의 교육수준 낮음)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의 유동성이 낮은 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오랜 전통의 사회복지체계 하에서 교육복지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독일 학자금 지원법 및 제도를 우리나라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독일 △사회△법△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록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지식과 정보의 보고, 도서관 [2]
이번 해 11월, 새 단장을 시작하는
중앙도서관, 스마트 도서관과 함께
우리학교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한국외대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 선포식(2015.11.4)



▲스마트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착수식(2018.4.19)



▲서울캠퍼스 스마트 도서관 조감도

현재 우리학교의 미래 준비 논의에서 큰 화두 중 하나는 스마트 도서관의 건립이다. 1978년 10월 독립·전용 건물로 신축돼 40여 년 동안 학생들의 향학열(向學熱)을 품어 온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최근 들어 낙후된 시설과 안전 문제 등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2015년부터 새로운 스마트 도서관 건립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중이책 보관 및 대역△디지털 아카이빙△학생들의 학습 효과·교수들의 연구 능력을 향상△건축미학적 요청과 구성원들의 사용 편의까지 고려한 미래형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같은 해 11월 4일 ‘한국외대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 선포식’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면서 건립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됐다. 이날 행사장은 스마트 도서관 건립에 힘을 더하기 위해 모인 각 계각층 800여명의 동문들로 성황을 이뤘다. 또한 스마트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이버한국외대를 비롯한 동문 기업인들, 각 학과의 동문회 등의 구성원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세

롭게 선보일 스마트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 4,400평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지하엔 70만 여 권 서적을 보관할 수 있는 폐가식 수장고, 지상엔 50만 여 권 서적을 보관할 수 있는 개가식 서고를 짓는다. △1,700여석 열람실△80여실 캐털△스카페라운지△미디어플라자△컨퍼런스룸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1954년 개교와 함께 종로2가 영보빌딩 가교사에 도서관 설치

1957년 이문동 캠퍼스 이전과 함께
舊본관(現역사관)에 도서관 설치

1963년 舊학생회관(現법학관 건물 위치) 교사 신축과 함께 1층에 도서관 설치

1978년 독립·단독 건물로 현재의 중앙도서관 개관

1989년 중앙도서관 시설 개선

2007년 서울캠퍼스 법학관 내 법학전문도서관 개관

2020년 스마트 도서관 개관 예정

개교와 함께 시작된 우리학교 도서관은 △우리학교의 역사△구성원들의 꿈과 희망△열정을 담고 있는 그 학교의 전통이자 미래다.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이 갖춰지고 학생 친화적인 스마트 도서관이 예정대로 개관되면 우리학교는 미래를 향한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 출처 :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HUFS tory -외대, 세계를 품다』, 2018, 163~166쪽.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빅 브라더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스몰 시스터의 시대

지난달 13일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도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은 한 맘카페에서 해당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의 게시로 시작됐다. 그 후 원생의 친인척이 사담을 개진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보육교사의 동의 없이 그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고 보육교사는 이에 대해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처음 게시글 작성자와 원생의 친인척의 신상

까지 밝혀지며 사건은 여전히 논란에 있다. 이처럼 맘카페를 포함한 개인의 커뮤니티는 ‘스몰 시스터’라는 사회용어로 정의된다. 스몰 시스터는 개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공유와 개인 권리 증진 등의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무분별한 마녀사냥△왜곡된 정보의 공유△사회 혐오세력의 성장 등의 역기능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에 스몰 시스터 현상은 무엇이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젠 스몰 시스터의 시대

‘스몰 시스터(Small Sister)’는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의 권력을 말하는 용어인 ‘빅 브라더(Big Brother)’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 소설 〈1984〉에서 비롯된 용어로 소설 속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텔레스크린을 설치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한다. 이는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권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소수의 권력자들이 사회를 통제하며 민중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알 권리를 막는다는 부정적인 면을 갖는다. 현대에도 이와 같은 빅 브라더의 감시는 계속된다. 중국 공산당국은 인터넷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달 1일부터 인터넷 안전 감독·검사 규정을 가능하게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은 이 규정을 통해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의 전산센터△사무 공간△영업장소에 들어가 △조사△자료 열람△자료 복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안이 인터넷 기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사회를 통제·감시하는 빅 브라더를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스몰 시스터는 이러한 빅 브라더에 대해 인터넷과 SNS의 발달과 함께 만들어졌다. SNS의 보급 이전에는 개인의 의견이 확산되거나 공론화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SNS가 보급된 이후에는 누구나 의견 개진이 가능해져 공론화가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개인은 인터넷 카페 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개인의 경험 및 사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개인의 경험 및 사회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는 △신제품에 대한 후기△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새로운 유행 전파가 포함된다. 이들은 다수가 모여 소수 권력에 대항하는 대중의 담론을 형성한다. 이것은 소수의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던 시기를 지나 개인의 폭로로 정치권 세력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사용 후기 하나로 기업을 위기에 몰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몰 시스터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착한 스몰 시스터

스몰 시스터의 가장 큰 순기능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익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기업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 맘카페에는 남양유업 ‘임페리얼 XO’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작성한 카페 회원은 “분유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남양유업 고객센터에 항의했다”며 “남양유업 측에서는 이 이물질이 털이 달린 코딱지라는 응답 후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남양유업의 부적절한 대응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정인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에 “제조과정에서는 이물질이 절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진행 중이지만 개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커뮤니티에 올려 공론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권력이 커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민청원제도 또한 스몰 시스터의 순기능을 보여준다. 국민청원제도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민과의 소통창구다. 개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 국민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각 부처 장관△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답변한다. 이는 개인의 의견이 거대 담론이 돼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스몰 시스터의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나쁜 스몰 시스터

한편 스몰 시스터가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왜곡된 정보의 공유△사회혐오세력의 성장이라는 부정적인 결과 또한 발생한다. 마녀사냥식의 ‘신상 털기’(개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실제 2005년 서울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장면이 한 누리꾼에 의해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여성을 ‘개똥녀’라고 칭하고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상을 털어 여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하게끔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올린 건 잘못”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상털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계속해서 △평공냥△배신남△패륜녀 등 확인되지 않은 글과 사진을 올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을 이어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인터넷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네티즌이 스스로 반성하길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스몰 시스터의 부정적 영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스몰 시스터가 형성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며 누리꾼들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특정 △성별△지역△인종에 대한 혐오를 강하게 표출하며 이에 대해 △차별△욕설△비하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는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았고, 곧 이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지난 8월 3일 검찰에 검거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위마드도 극단적인 남성 혐오를 드러내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위마드에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사진 유출됐다. JPG’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먹다 남은 김치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글에서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져서 먹기 편했다”고 언급했고, 이 커뮤니티 회원들은 댓글에서 이 게시자에게 공감하는 글을 올렸다. 스몰 시스터는 사회 문제에 대해 서로 연대하며 그들만의 집단을 만들지만 그 집단이 혐오를 담고 있으면 빠르게 부패됨과 동시에 경쟁하듯 자극적인 게시글을 올린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오·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SNS의 확산으로 인해 의견 개진에 있어 개인의 힘이 증대된 만큼 개인도 책임감 있게 글을 올리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힙 소 사 이 어 티

우리학교 중앙 영화 동아리 ‘올림’은 1984년에 설립됐으며 영화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동아리다. 대표적인 동아리 선배로는 <판도라(2016)>의 감독 박정우가 있다. 동아리 ‘올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인터스텔라 △문라이즈 킹덤△바닷마을 다이어리△브로크백 마운틴과 같이 연출이 독특하거나 섬세한 작품을 좋아하며 공포 영화는 무서워하는 그녀, 조연주(서양어·독일어 17) 영화동아리 ‘올림’ 회장을 만나봤다.

기자 :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연주 : 가장 큰 활동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 팀을 짜서 영화를 찍고,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엽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 촬영 초보자를 돕기 위해 정기 모임 때 관련 스테디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기모임에서 영화를 보거나, 영화반을 따로 뒀 한 주에 한 번 영화를 △발제△감상△비평합니다. 동아리 부원을 전제가 영화관 방문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는 등 각종 영화제 참석과 같은 활동도 합니다. 올림 부원들은 △뒤폴이△친목 조△MT△신입생 환영회를 통해 친해집니다. 이번 할로윈에는 밤에 자취하는 부원들 집을 찾아가며 ‘trick or treat’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자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연주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수요일 영화반에서 <우리들>과 <싸우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관계와 소통에 관한 주제로 진행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자신의 성격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동아리에 들어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되게 무뚝뚝하고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라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편인데, 올림에서 좋은 사람들을 알고 친해지게 돼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영화제도 정말 재밌었고 추억하는 다른 활동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자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연주 : 처음으로 제 영화를 찍었을 때, 한강 쉼터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강에서 새벽 3시까지 촬영하느라 다들 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배우 분들께서 고생이 정말 많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소품으로 쓰고 있던 맥주를 벌컥벌컥 마신 것과 촬영 중간에 방전된 카메라 배터리를 화장실에서 충전하던 기억이 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촬영 현장이었지만, 스태프 분들과 배우 분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화제에서 제 영화를 상영하는데 감독 이름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설렘했습니다.

기자 : 이 기사를 보고 있을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연주 : 제가 생각하는 영화란 관객에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새길 수 있는 매체입니다. 영화를 함께 본다는 건 그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는 매학기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공부하고 싶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학우분도 영화를 사랑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올림에 지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영화 보러 가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점화된 심신미약 감경 논란

김성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지 미네르바교양대학 강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피의자 김성수(이하 김 씨)의 가족이 경찰에게 우울 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심신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처벌의 방패막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정신질환이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22일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현재 국립법무병원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상태다. 김 씨는 한 달간 개인 면담 및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의사와 전문가로부터 판단받을 예정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개인 면담△각종 검사(게임중독 여부 등)△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김 씨의 정신감정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정신감정서에 기반해 김 씨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상이하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 씨는 말투가 굉장히 어눌하고 전반적으로 의기소침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정신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더라도 흥기를 가져온 계획적 살인인 점은 참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배상균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강사는 “현재 심신미약에 의한 흉악범죄는 시급한 문제로 최근 법원의 음주자나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이 비교적 엄격해졌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적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씨의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인 심신미약 감형의 정확한 적용기준과 심신미약 감형을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및 사건 행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김성규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연지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에게 물어봤다.

Q1. 형법은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을 어떻게 규정하며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김성규 교수: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향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형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정신박약△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요소로서 사물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해 결여되거나 감소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 사물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은 범행 충동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과정에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연지 교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여기서 사물 변별능력은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은 자기가 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범죄성립의 3단계 중 세 번째인 책임조각사유를 항변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죄가 되지 않아 행위자를 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데, 판례에 따르면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법률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종합적 법률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전 판례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의 경우 심신상실을 인정했고(80도656), 정신병과 동등한 충동조절장애의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99도898). 2016년 ‘강남역 문자마 살인사건’의 경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2017도1213). ‘조두순 사건’도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법으로 인정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2009도7948). 한편 작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주범인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장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18도7658).

Q2.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김성규 교수: 범죄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그 행위에 관해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입니다. 범죄성립요건의 책임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은 행위자가 법규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심신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처벌의 방패막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정신질환이 처벌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심신미약 조항을 없애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던 경우는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이 부정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행위 당시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미약했던 때는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되지만 책임이 감경되고 그 결과로 형이 감경됩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인간의 의사 자유를 전제로 하는 책임(유책성)을 범죄성립의 요건 내지 가벌성의 요건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인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지 교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없애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위법△책임의 행위라고 할 때, 책임은 범죄성립의 세 번째 요건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 원칙은 형벌 성립근거이자 제한원리이고 형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핵심원리입니다. 형법은 형벌을 부과할 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도 하고 형

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봐(형법 제9조)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형벌의 수위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10조 폐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심신미약감형을 할 수 없도록 특별법이 신설됐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은 지양돼야 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의 개념이나 심신상실 또는 미약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법률의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Q3. 피시방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나요?

김성규 교수: 「형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비추보면 책임감경 사유로서의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심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경 사유로서의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신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했던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울증은 정신병의 일종으로서 정신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사물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의자에게 정상적인 사물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보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된 피의자의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보면 범행 당시 피의자에게는 정상적인 사물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지 교수: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 소견을 참고했을 때, 피고인에 대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과 앙심을 품고 그의 인면부를 30차례 이상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선악과 시비를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분노조절장애나 인격장애(사이코패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란 사람은 완벽함에 가까워지고 싶지만 구멍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 일을 미리 정리해두고 쫓기며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런데 학보생활은 매일이 예측 불가능이라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다. 학보 선배들은 모두 “첫 기사가 제일 힘들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의 경우 지난 세 번의 기사 중 첫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는 매번 힙들을 갱신해가고 있다.

첫 기사인 1023호에선 인물 면을 맡았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외활동의 이사장님이신데 감사하게도 후배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다. 게다가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해주는 것이 기자에게 편한지 알고 계셨다. 덕분에 매우 수월하게 기사를 썼고 거만하게도 “기사 쓰기 별로 안어렵네”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사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이 기사에서 나는 인물 면과 '지구촌'을 읽다 코너를 맡았었다. 사실 회의 전날까지 주제를 못 잡고 있었는데 우리학교 커뮤니티사이트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올라온 프랑스어과의 이동석 선배님 관련 글을 보고 인터뷰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행운이라며 신나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섭외였다.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어과 과사무실에 전화해 인터뷰 여부를 여쭙봐주실 수 있는지 문의했다. 돌아온 대답은 그분의 전화 번호가 정확하지 않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절망에 빠진 나는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드리기로 했다. 다음날엔 교수님들의 기고글이 들어가는 '지구촌을 읽다' 코너를 위해 열 분의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묵묵부답이셨고 연락이 온 교수님들은 일정이 바빠 기고글 청탁이 어렵다고 하셨다.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인물이 섭외가 안 되면 어떡하나, 기고글 청탁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걱정에 잠도 설친 채 월요일이 됐다. 9시가 되자마자 프랑스어과 과사무실에 전화하고 혹시 교수님 메일이 왔을까 메일함을 들락거렸다. 수업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만 가득했다. 그러다 오후에 메일함에서 '안녕하세요, 문승용입니다'라는 글자를 봤을 땐 어찌나 기뻐는지! 이어 프랑스어과 과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와 인물 섭외에도 성공했다. 그때도 감사함을 전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문승용 교수님, 이동석 선배님, 프랑스어과 과사무실 조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쓴 1025호 기사이다. 매번 인터뷰 기사만 쓰다 보니 편집장이 다음 기사는 기획기사를 쓰라고 으름장을 놔다. 다행히도 시험기간 덕분에 3주 후에 마감이었고 흔쾌히 알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시험기간이 연장되면서였다. 마감 전날에 시험이 끝난 것이다. 덕분에 마감날 인터뷰를 하고 밤을 새워 기사를 썼다. 게다가 그날 새벽 커버스토리 사진을 내 기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외대사랑순찰대가 근무하는 오전 11시까지 학교에서 뜬 눈으로 버티다 사진을 찍고 바로 조판소로 가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칼럼'과 '뒷담하는 기자'를 쓰지 못했었는데 편집장의 배려로 천천히 쓸 수 있게 됐다.

세 번의 기사를 거처며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신문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편집장, 다른 기자, 취재원, 더 나아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하나의 신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좀 완벽하지 못하면 어쩌인가. 학교 모든 이들이 나를 도와줄 텐데.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만큼 더욱 발전된 기사를 내보이도록 노력하겠다.

윤아영 기자

폭풍의 언덕

이 책은 1801년 어느 겨울날 랙우드라는 남자가 폭풍의 언덕에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히스클리프라는 매우 불친절한 집주인을 만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폭풍의 언덕의 원래 주인은 연쇼이며 여행 중에 히스클리프라는 고아를 데려온다. 연쇼에게는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남 힌들러는 아버지가 히스클리프를 친아들처럼 대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괴롭힌다. 또한 그는 자신과 사랑에 빠진 둘째 캐서린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자 그녀에게 원한을 품게 된다. 히스클리프는 우선 힌들리를 도박으로 패가망신하게 하고 캐서린 남편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해 결혼한다. 이후 캐서린이 죽자 그녀의 딸을 자신의 아들 린튼과 강제로 결혼시켰다. 힌들리의 아들들 자신이 유년시절에 당했던 그대로 학대한다. 이런 히스클리프의 모습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으로 히스클리프는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해석되며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한다. 비록 힌들러가 히스클리프를 학대하긴 했어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를 연쇼 가문이 거둬줬다는 점에서 이런 히스클리프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힌들러에 대한 원한과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캐서린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들과 그 자식에게까지 자신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줬다.

문학칼럼 [문학 곁핥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히스클리프는 불쌍한 인물로 보인다.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유년시절의 학대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또한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그와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지체를 낮추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캐서린 또한 그를 사랑했지만 그 말 이후 곧바로 자리를 뜬 그는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어긋난 사랑으로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죽었을 때 그녀의 시신과 영혼을 소유하려는 심한 편집증을 보인다. 그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며 울부짖고 굶기야는 그녀의 시신이 담긴 관 뚜껑을 열어 그녀의 얼굴을 보고 희열을 느낀다. 그러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복수가 부질없음을 깨닫고 단식하다가 눈도 못 감고 죽는다. 이 장면은 그가 캐서린과의 영혼의 합일을 꿈꾸며 복수를 내려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나라의 옛 속담이 있다. 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가 이 속담의 적절한 예다. 이 소설에서는 주위는 아이가 원래 주인의 아이들 자리를 빼앗고 그들을 파멸로 내몬다. 소설 속 많은 인물들이 죽고 불행한 삶을 살지만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과 증오, 복수와 치유 등 인간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그 날의 분위기를 되새기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개봉했을 때는 2002년, 나는 유치원생이었다. 우리 가족은 여수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변에 영화관이 없었다. 그래서 아빠는 개봉한지 조금 지난 영화들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해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조금 늦은 오후, 커튼을 치고 노란색으로 물든 거실에서 네 가족이 모여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사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개봉한 그 순간부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를 봤을 것이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제목만 들어도 옛 향수에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화의 매력은 셀 수 없이 많다. 우선 화려한 배경 그림이다. 영화의 주인공 ‘치히로’는 주인공답지 않게 수수한 작화로 그려진데 비해 배경 그림은 매우 화려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치히로가 신비로운 마을에 들어와 귀신들에게 들리지 않으려 숨어있는 장면이다. ‘치히로’는 우연히 이상한 마을에 들어와 부모님이 돼지로 변하고 혼자가 된다. 낮에 아무도 없었던 그 마을은 바로 ‘신들의 마을’이었다. 당황해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치히로는 온천탕 주인 ‘유바바’의 제자 ‘하쿠’를 만나 위기를 모면한다. ‘하쿠’가 일러준 대로 강가에 숨어있던 ‘치히로’는 강가에서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보게 된다. 바로 화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유람선이 어둠을 뚫고 강을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는 영화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돼 있어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영화에 내포된 의미다.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선입견에 치중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절실히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치히로는 신들의 세계에 갇히게 되며 ‘유바바’에게 원래의 이름을 뺏기고 ‘센’이라는 가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 후 그곳을 빠져나오며 원래의 이름을 되찾는다. 이는 ‘유바바’의 언니 ‘제니바’의 대사를 통해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한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다. 이는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치히로’들에게 ‘잃어가는 나 자신’에 대해 고찰해보라는 영화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은 바로 배경음악이다. 특히 마음에 드는 음악은 히사이시 조의 ‘One Summer’s Day’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영화 하나하나의 장면이 그려지고 처음 영화를 봤던 그날의 분위기가 되새겨진다. 그 후 내 소유의 엠피스리가 생겼을 때 이 노래를 재생 목록에 넣어뒀다. 유독 힘들고 지친 날 들으며 자기 위함이었다. 20살이 넘은 지금도 가끔 이 영화를 한 번씩 돌려보곤 한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배경음악을 들을 때마다 여수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추억에 젖곤 한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학교의 주인, 외대인이 성숙해지는 길

이지은(아시아 · 태국어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24호는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소음문제△김흥배 동상 설치△서울캠퍼스의 하반기 정기총회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이외에도 가짜뉴스와 남북정상회담 등 우리학교 밖의 정치적 기삿거리도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먼저 기숙사 소음공해 기사에서는 문제접근과 답변이 잘 이뤄졌다. 학생들의 불만인 만큼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의 게시글을 이용하고, 높은 추천 수로 학생들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또한 건물 벽 크랙과 소음의 관계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으로 학생들의 오해를 해소했다. 늦은 시간 소음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공동생활 의식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꼽고 그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기숙사 운영팀의 답변을 같이 내놓음으로써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잘 제시했다.

김흥배 동상 설치 기사에서는 김흥배의 학교 설립 공헌과 친일 행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과 학교

운영팀 인터뷰를 제시하고, 동상 관련 질문에 재단과 학교 운영팀들 측의 책임 전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학교 실정을 제대로 지적하고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실현한 것이다. 또한 1면에 동상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김흥배 동상에 대한 이번적인 부문을 각인시켰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사의 완벽성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동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는 78.8%가 ‘김흥배의 교육적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표시하고, 기사에서는 21.3%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독자의 가독성이나 이해도를 해치는 기사입력상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심층보도에서는 정기총회 성사를 위한 장소 이동, 접근성, 참여한 학생들의 실시간 불만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차례로 나열했다. 또한 2017 하반기 정기총회 참여율에 비해 2018 하반기의 참여율이 2%가 더 높다는 점을 제시하며 앞으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를 희망한다고 독자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학교가 되길 바라며

허예림(국제지역 · 한국 15)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24호에선 △남학생 휴게실△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숙사△김흥배 동상 설치 등 글캠 내의 사설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 먼저 조유진 기자가 작성한 ‘우리학교 남학생 휴게실 현주소’에서는 서울캠퍼스뿐만 아니라 글캠에 여학생휴게실은 있지만 남학생휴게실이 없는 것을 통해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 이 기사는 다른 학교 남학생휴게실 현황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 보였다. 한편, 현소주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글캠 기획건설팀이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은 만큼 총학의 인터뷰도 함께 실어 구체적인 방향을 말해줬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김초영 기자의 기숙사 관련 기획은 수리기사들의 방문과 소음 공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기숙사생은 아니지만 수리기사 출입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학보에서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쓴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이번만 아니라 최근 많은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기숙사소음 공해 또한 해당 기사를 기점으로 개선됐을 한다.

이번 1024호를 읽으며 가장 관심이 많았던 기사는 이은지 기자의 김흥배 동상 설치에 관한 기사였다. 4년간 학교를 다니며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또한 김흥배 동상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

적인 의견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의 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학우들의 반응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입장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학교는 학생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이다. 하루빨리 신속한 조치와 현명한 대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효빈 기자의 남북정상회담 기사 역시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필자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한 기사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문들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윤아영 기자의 인물 기사에서는 현재 프랑스어과에 재학 중인 73세 이동석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 학교에 이런 분이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 새로웠고 필자 또한 연극영화에 꿈을 키우고 있는 만큼 몽글몽글한 한 느낌이 있었던 기사였다. 또한 학보를 읽는 학우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어느덧 4년간의 학교생활을 마무리 지어가며 학교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독자위원을 통해 보게 된 학보는 지루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재밌고 신선한 내용들이 많았다. 얼마남지 않은 학교생활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챙겨볼 것 같다.



세계가 직면한 ‘이상한 계절’,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약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휩싸였다. 연 일 전력소비량은 최고점을 기록했고 냉방설비가 갖춰진 백화점 등지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랬던 날이 단 몇 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날씨는 두꺼운 점퍼를 안 입을 수가 없었다. 가을에 입으려고 사놓은 옷을 채 다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가을이 없어졌다.

지난달 중순 일본은 정상적인 개화시기를 약 6개월 앞두고 벚꽃이 피 화제가 됐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그 원인은 이상 기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본에 상륙한 두 차례의 초강력 태풍으로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자 벚나무가 이를 꽃을 피울 기온으로 인식해 개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때 아닌 태풍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25일 사이판을 덮친 태풍 ‘위투’의 최대 풍속은 290km/h였다. 이는 슈퍼 태풍의 기준인 시속 241km를 훨씬 웃돈 수치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원인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 수증기의 양이 늘자 이로 부터 태풍이 연료를 공급받으며 크기를 키웠다. 실제 태풍의 위력이 절정에 달하기 직전 해수 온도는 30도였다.

이상기온은 이처럼 우리나라에 인접한 국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간협의(IPCC)’ 총회에 따르면 총회에 참석한 기후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점이 된 사안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기존의 2도에서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 보고서에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를 표했다. 경향신문의 자세한 보도에 따르면 위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여름철 북극 해빙(海水)이 100년에 한번 꼴로 사라지지만, 2도 상승하면 10년에 한번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지구의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지구상의 산호가 70~90% 소멸하지만, 2도가 상승하면 99% 이상 소멸한다는 관찰 결과를 통해 0.5 도의 평균온도 상승폭 차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한편 이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각 국가의 급전적·정책적 측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노력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후변화는 특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긴다. 이는 지난 여름 역사상 가장 지독했던 폭염을 거치며 목격한 사실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식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밝아지는 방법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가려 선택하는 것을 싫어할 뿐이라네. 오직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툭 트여 환히 밝아지리라” 이 노래는 승찬(僧璨, ?-606)의 『신심명(信心銘)』의 처음에 실려 있는 노래다. 승찬은 초조(初祖) 달마(達磨)와 2조(二祖) 혜가(慧可, 486-593)를 잇는 선의 3대(代) 조사(祖師)다.

3조 승찬은 2조 혜가를 만나기 전에 ‘대풍질’이라는 나병을 앓았다고 한다. 그는 나병의 고통을 앓는 이유를 스스로 지은 업장이 두터운 까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투철한 참회를 통해 나병이 낫기를 고대했다. 혜가는 승찬에게 “그대의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앓는다고 생각하니, 그 죄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인다면, 그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고 했다. 승찬은 혜가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혜가가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됐다.”고 일러줬다. 그리고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의지해 안주하라”고 했고, “불법승은 바로 마음일 뿐이며, 온 우주 법계가 다 마음일뿐”이라고 일러줬다. 이 말을 듣고 승찬은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혜가는 그의 머리를 깎고, 스님 승(僧)에 구슬 찬(璨)의 승찬(僧璨)이라고 법명(法名)을 지어줬다.

『신심명(信心銘)』은 바로 이 승찬의 저술로서, 선(禪)의 요체를 사언절구(四言絶句)로 풀이한 73송(頌) 146구(句), 584자(字)의 운문(韻文)이다.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는 노래다. 즉 도(道)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반(兩邊)을 여인 중도(中道)임을 노래한 것이다. 지적인 분별의식을 배척하고, 무분별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 따르면, 현대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일체의 분별 때문이다. 이분법적 사유와 흑백논리가 만연한 현대 우리의 자화상은 한마디로 ‘분별로 인한 고통’ 그 자체다. 불이중도(不二中道) 사상은 바로 이런 분별로 고통 받는 현대인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은 대립을 화합으로, 반목을 수용과 포용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다. 승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지극한 도에 이르러 즐거움을 느끼라는 것이다. 지금 바로 여기서 그것을 느끼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성철 스님도 일찍이 『신심명』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도리를 아름답고 간명한 언어로 잘 설명한 ‘중도총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협간택(唯嫌兼擇), 단막중애(但莫憎愛), 통연명백(洞然明白).”

김원명 (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교수)

안전에 대한 관심 촉구

세간의 이슈는 ‘살인(殺人)’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 폐지 할머니 살인사건, 성남시 영유아 토막살인, 춘천 연인 살인사건 등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심심미약의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심심미약으로 형량을 줄이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110만 명의 청원을 받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살인과 처벌에 관한 국민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세상이 흥흥하고 범죄자들도 심심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적게 받으니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조두순의 8세 여아 폭행·강간 사건의 형량은 12년이다. 출소일은 2020년 12월로 2년 정도 남았다.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범죄자가 세상에 다시금 나와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지켜줘야 할 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을 규탄한다.

더불어 안전에 관심이 증가했다. 보안장치가 이중으로 된 집이 많아졌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보안카드를 대야 운행이 가능하게 장치한 건물도 증가중이다. 법이 제 역할을 못해 개개인이 지키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다. 학교의 방안으로는 ‘외대사랑순찰대’나 ‘홈폴리스’ 운영이다. 학생들은 위의 순찰대 운영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학교는 예산이 적어 전문 경비업체를 고용할 돈이 부족해 다른 방안이 없다고 한다. 우리 학교 학생이 외부인의 침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포교활동, 반려동물 출입, 고성방가 등이 있다. 사례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언제나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공격을 하는 괴한이 생길지 모른다. 지속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학교도 안전하다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동민 편집장

우리들의 맛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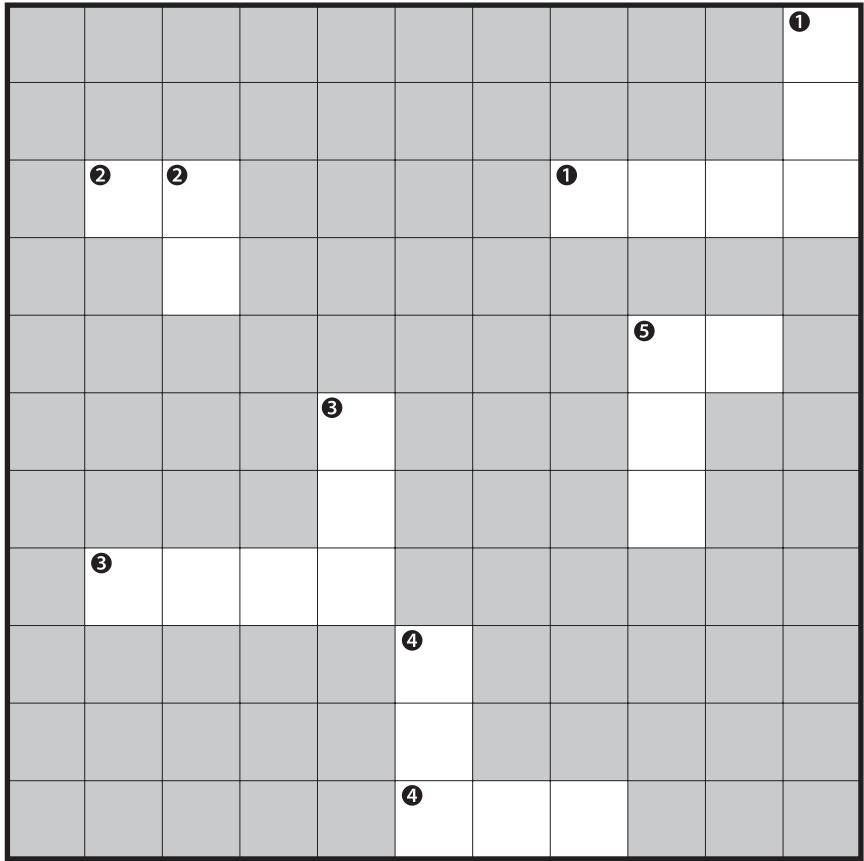
독도회수산

허브영양족발 있는 골목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독도회수산입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한데 회도 푸짐하고 비린내도 안나고 회가 싱싱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 먹기 괜찮아요!!



맛집 기사제보 정동민 편집장 010-2267-2192, 95won01000@hufs.ac.kr
선정된 독자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 박철 전 총장 ○○○○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면 참조)
2. 이번 학기 중간고사 때 경제발전론 시험에서 몇몇 학생들이 ○○○를 둘러보는 일이 발생했다. (7면 참조)
3.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 및 ○○○○에서의 경험을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면 참조)
4. 신정수 씨는 ○○○를 졸업한 후 IT벤처였던 가인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다. (12면 참조)
5. 경제○○ 축보 사건에 학생들은 시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7면 참조)

세로

1. 이번 인물면에서는 수학 관련 도서 출판과 수포자 전문 강사로 자리매김하고 현재 우리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인 ○○○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12면 참조)
2. 경기도 김포 어린이집 사건은 말카페에서 ○○○사가 원생을 밀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으로 시작됐다. (8면 참조)
3.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에는 외대사랑 ○○○, 글로벌캠퍼스에는 홈스폴리스가 교내외 안전사고를 예방, 치안유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4.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는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과 목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9면 참조)
5. 우리학교는 최근 동대문구 가을음악회, 도서관 증개축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5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니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정동민 010-2267-2192 95won01000@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정동민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IT계의 선구자, 철학 박사에 도전하다.

△LG전자 입사△IT 회사 창업△수학 관련 도서 출판△수포자 전문 강사로 자리매김한 우리 학교 재학생이 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졸업 후 우리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신정수(일반·철학 17) 씨다. 이공계 계열에서 한 획을 그은 그가 지난해 우리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된 것이며, 그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

Q1. 대학교 졸업 후 IT 업계에 종사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984년 봄 LG전자(당시 금성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실에 입사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당시 IT 벤처였던 가인시스템이라는 작은 회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1991년 대학 동기와 '인성정보'라는 IT 회사를 공동창업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제가 지었는데, 어질 인(仁), 별성(星)을 써서 IT업계의 '어진 별'이 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반 PC에서 IBM 단말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는데 다행히 이 제품은 이 회사 초기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네트워크 전문 회사로 거의 매해 100%씩 꾸준히 성장했고 1999년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40대까지 주로 IT 관련 비즈니스에서 일했는데 이 무렵 업계 후배들의 창업에 대한 투자도 꽤나 하곤 했습니다.

Q2. IT 업 외에도 수학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00년 이후 국내 IT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침 제 나이도 오십이 되면서 비즈니스 자체보다도 무언가 의미 있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대학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학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잘못된 교육 방식의 피해자인 이 땅의 수많은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올바른 수학교육법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학원가에서 몇 해간 수학 강사생활을 한 후, 탈북인 자녀 학교(한겨레 중·고등학교), 교회 등에서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위해 재능기부 강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요청과 지원에 따라 수포자 출신 일반인들을 위한 미적분 강좌, 삼각함수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통합 수학 책인 <수학의 맥점>이란 책을 써서 출간한 적도 있습니다. 수학을 오랫동안 학교에서 배웠지만 막상 다시 공부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시험 대비 문제 유형 학습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으로 꼭 알아야 할 초·중·고 수학의 핵심 원리들을 열심히 정리했던 책을 출판했습니다.

Q3.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수학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에 내몰려 오묘한 수학의 이치를 공부하는 대신 꼬인 문제 풀기에만 급급해요. 많고 어려운 문제들을 실수 없이, 재빨리 풀어내는 연습만 하다 보니 수학의 나무만 보고 숲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에 수포자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나 수포자 출신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생 수학 수준이더라도 미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강만으로도 잘 이해시킬 자신이 있었거든요. 마침 네이버 커넥트재단에서 저를 수포자 전문 선생으로 봐주신 덕에 이런 강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봄에만 한 기업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열 명 정도를 대상으로 90분간 네 차례에 걸쳐 중학 수학 기초부터 대학 교양 수학(Calculus)까지 강의했는데 좋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수포자 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나 입시에서 평가 방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의 꼬인

문제들만 출제하는 방식을 기본 원리 이해나 서술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의견에 변별력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이 부분에 개혁과 인적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Q4.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40대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IT 비즈니스를 할 때 인성정보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순간이 매우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30대에 열심히 고군분투한 일들이 고생스럽긴 했어도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도 생겼죠.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때가 가장 보람 있었어요. 이를테면 인터넷으로 SAT와 AP-Calculus를 가르쳤던 수포자 유학생 중 한 명은 홍콩 대학교에 합격한 후 한 달간 미술학원까지 다니며 제 초상화를 그려 액자에 넣어 선물로 준 적도 있어요. 제겐 참 감동적인 추억이죠.

Q5. 수학은 이공계열이고 철학은 인문계열인데, 전공인 수학과가 아닌 철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진학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문에 있어서 이공계와 인문계 간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철학과 매우 통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깊이와 함께 명확한 논증적 사고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오래 전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학자가 곧 철학자인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저는 대학 시절에 수학을 전공하면

서도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학기초론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리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을 가장 존경하는 학자로 추앙하기도 했고요. 대학원에 와서 분석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 마치 전공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새삼 철학이라는 학문의 추상성과 치밀성에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몇 해 전 여러 대학원의 철학과를 검색해보다가 임일환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생겨 이메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후부터 우리학교 철학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자상하신 안내와 함께 일단 대학원 공부가 자기에게 맞는지 청강부터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막상 용기를 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쉽지 않았더군요. 그러다가 지난해 예순이 되면서 이제 더는 미룰 게 아니라 일단 사고부터 치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웃음).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입학하게 됐는데 철학 공부가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시작할 걸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Q6. 철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치신 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슨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사실 학위에 대한 집착도 없고요. 다만 이쪽 공부를 새로 시작했으니 학위를 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싶다는 의욕은 있습니다. 또 좋은 여건 속에서 여러 도반들과 함께 열심히 탐구하고 토의하는 생활을 즐기다 보면 철학 분야에서 점차 내공이 쌓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나중에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좋은 책 몇 권을 세상에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은지 기자 97e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9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8. 10. 1(월) ~ 10. 8(월)	10.27(토) 10:00	11.8(목) 14:00	11.12(월)-11.16(금)
일반전형	2018. 11. 5(월) ~ 11. 9(금)	12.1(토) 10:00	12.13(목) 14:00	12.17(월)-12.21(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4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국내·외 장학금 혜택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